

# 핑크빛 벚꽃 아래서

글 · 사진 대외홍보팀 김효진 선임과장





어린 시절 하룻길, 내 등판을 따듯이 데워주는 햇살과 얼었던 땅이 녹으며 나는 흙냄새에서 봄이 느껴졌다. 고등학교 3학년의 시작인 3월, 창가 내 책상 위로 풍요롭게 쏟아져 내리는 노곤한 햇살 속에서 성인이 되어 맞이할 내년 봄을 기약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모래바람이 봄을 뒤덮더니 이제는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내가 알던 봄날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곳곳에 벚꽃 개화 소식이 들린다.

매년 찾아가던 진해 군항제 대신 올해는 오사카로 떠났다. 만개한 벚꽃을 보고 있다면 무채색 수목화에 핑크빛 물감을 쏟은 듯 공간을 극적으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며칠 후면 초록색 잎이 나오기 시작하며 여름이 머지않았음을 알려줄 것이다. 몇 주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대지는 계절을 바꾸고 나는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되새기며 고쳐 쓴다. 이번 주말에는 벚꽃이 잘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봄을 만끽해야겠다. ☺

#### 한국 벚꽃 개화 시기

서귀포	3. 22	강릉	4. 1
여수	3. 29	대전	4. 2
광주	3. 29	청주	4. 3
부산	3. 27	서울	4. 5
대구	3. 27	인천	4. 7
포항	3. 28	춘천	4. 9
전주	3. 30		

#### 일본 벚꽃 개화 시기

후쿠오카	3. 21	교토	4. 5
나고야	3. 22	센다이	4. 4
오사카	3. 27	니가타	4. 7
도쿄	3. 27	삿포로	5. 2